

지역 매아리

고창군, 재난대응 훈련 실시

전국적으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고창군에서도 민관군이 함께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은 30일 오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오후에는 지진 복합재난 현장훈련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이길현 농수산경제국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여부를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가 열렸고, 재난상황을 가정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오후 2시에는 진도 5.0규모의 지진이 발생 한 뒤, 방사능누출과 고창농산물 유통센터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다.

소방서, 경찰, 의용소방대 등 주요기관 및 민간단체 250여 명이 참여한 복합재난에 따른 초기대응 및 진압, 재난현장 통합 지휘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응급의료소 등 운영, 유관기관간 단계별 협조체계 구축 및 응급복구활동 현장조치 등 실전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이 열렸다.

오늘은 고창종합병원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해 안전문화 실천교육을 병행해 훈련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가져

정읍시는 지난 29일 2021~202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1차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국·소장과 각 부서 실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각 부서에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보고회에서 2021~202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총 56건이 제안됐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조 317억 원으로, 이 중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560억 원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15건에 사업비 532억 원, 국토교통부 8건에 사업비 710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8건에 사업비 448억 원 등 총 1조 317억 원이다.

주요 발굴사업은 ▲헬륨이용 의료용 암 치료 가속기 구축 ▲정읍 순항기 탐방로 조성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 ▲국지도 49호선(부전~칠보) 시설개량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무성서원 경관개선 및 역사문화환경 조성 ▲가죽농포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이다.

시는 새로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 관련부처 의견을 듣고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국가예산 확보 적극 대응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가 곰소염전 등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천명했다. 권 군수는 30일 열린 10월 연석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경관과 여업생태계, 전통어업, 해양문화 등 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곰소항과 곰소염전, 곰소갯길 등 부안의 어업유산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는 만큼 지정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유미를 양잠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통해 부안의 농수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농기센터, 단품미인대학 연합과정 교육 실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30일 제2점사에서 '정읍 단품미인대학 연합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 분야 이론을 체계화하고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육에는 단품미인대학 친환경유기농업과·약용자생식물과·귀농귀촌과·전자상거래마케팅과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먼저 더하다디자인연구소 김민식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김 강사는 '나만의 개성 있는 브

랜드 만들기'를 주제로 성공한 브랜드와 실패한 브랜드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어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금자 대표의 농업인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조 대표는 '혁신하는 농업이 행복하다'를 주제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빠르게 변

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시 농업도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6차 산업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품미인대학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5개 과정으로 과정별 2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는 내년 단품미인대학은 친환경유기농업과·e-비즈니스과·발효식품과 3개 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잼버리 개최지 부안 문화탐방 '큰 호응'

부안군은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장소 탐방을 위하여 6개국 15명의 스카우트 지도자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부안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크로아티아·러시아·미국 등 해외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지 및 과정활동장 방문 그리고 부안지역 문화체험으로 이루어졌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이루어진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참관을 시작으로 잼버리영지, 카누·카약·압박등반 등 수상산악 과정활동장으로 개발예정인 직소천과 청자박물관, 위도 등을 탐방했으며, 청자만들기, 보트체험, 누에박물관체험 등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큰 호응을 보였으며, 잼버리기간 위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브라운시 섹스체험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한 러시아 연맹 PROKOPENKO DMITRLL 지도



6개국 15명의 스카우트 지도자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부안을 방문했다.

자는 "위도에 스카우트 첫번째 야영이 이루어진 브라운시 섬을 위도에 재현한다면 많은 스카우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방문한 스카우트들은 부안은 잼버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한국에 오면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며, 잼버리영지 및 과정활동예정지를 보니 "즐거움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가진 잼버리에 전 세계 5만 여명이 즐겁고 재미있게 스

카우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준 부안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마음과 열정을 합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을 추억하고 언제나 찾아와 청소년시절 자신의 꿈을 되돌아보는 스카우트인들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모든 군민이 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 만들기 나선다.

고창의 미래 밝혀줄 블루오션!

군, 지역농산물로 식초 만들기 체험 확대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고창군이 모든 군민이 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 만들기 나선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 '대한민국 식초도시 선포식'을 앞두고 식초문화도시 고창군의 향후 추진계획과 미래비전이 공개됐다.

고창군은 "복분자 등 고품질 원재료의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초 산업은 농생명식품 수도 고창의 미래를 밝혀줄 블루오션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 모든 군민이 식초를 만들 줄 알고, 마시는 문화를 만들어 전년을 이어 갈 식초 성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먼저, 초등학교부터 경로당까지, 모든 군민들에게 식초 만들기 체험 교육이 진행된다. 단순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서 벗어나 재료를 직접 만지고, 향이리에 담고, 발효를 기다

리는 과정에서 고창의 농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슬로푸드에 이로운데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식초산업'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 관련 세미나, 문화강좌, 전시회, 엑스포 등의 개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웰파크시티(영원, 운천, 골프장, 펜션 집결지), 상하농원, 선운사 등의 힐링 휴양기능과 연계해 '식초'를 활용한 건강식으로 시장성을 확장해 나간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맘때쯤이면 노곤해지는 허, 텃밭해진 입맛 정도는 건강하면서도 새콤한 신맛을 보정해 줄 고창의 전통 식초를 만들어 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며 "자연과 문화, 딱거리가 어우러진 식초문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쌍화차 명품특화거리 조성사업 마무리 '박차'

정읍시가 '쌍화차 명품특화거리 조성사업' 마무리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쌍화차 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에 이르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길가 양쪽으로 총 13개의 전통차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정읍을 대표하는 도심 거리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나후배 방문객이 감소하며 주변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도심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는 '쌍화차 특화거리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정읍만의 특성에 맞게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명품특화거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전통 문양으로 거리를 포장하고 한식 담장·쌍화차 상징 조형물(야랑기)·야간 조명·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가 태어났다.

더불어, 이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각종 전선과 전주를 제거해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다.

유진섭 시장은 "쌍화차 명품특화거리 조성을 계기로 한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기반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쌍화차는 20여 가지의 넉넉한 한약재에 밤, 대추, 견과류 등 고명을 넣어 만든 전통 한방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Includes a cartoon bear mascot and contact information.